

ZOOM
-IN국내 기업의 XBRL 재무공시 의무화 확대
의의와 과제

- 최근 금융감독원은 XBRL 재무공시 선진화 방안으로 XBRL 재무공시 제도를 본문과 주석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발표
-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기업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에 대해 XBRL 데이터를 개방해 왔으나 국내에서는 비금융업 상장법인만 XBRL 재무공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공시내용 범위도 제한적
- 재무정보에 대한 XBRL 활용은 기업 재무분석 및 질적 정보를 이용한 기업평가를 용이하게 하고 재무제표와 주석 간의 정보불일치를 방지하여 재무정보의 정확성 향상에 기여
- 따라서 XBRL 재무공시 확대로 국내외 정보이용자들의 기업 재무정보를 이용한 분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외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고 재무정보의 투명성이 강화되며 해외 공시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
- XBRL 재무공시 의무화 확대를 앞두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들의 공시인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가운데, XBRL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확장태그 사용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시되는 XBRL 데이터 품질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

□ 최근 금융감독원은 XBRL 재무공시 선진화 방안으로 XBRL 재무공시 제도를 본문과 주석에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발표¹⁾

- 금융감독원은 2023년 3월 XBRL(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) 재무공시의 적용 대상 기업 및 공시내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
 - XBRL은 기업의 재무정보에 표준화된 전자태그를 첨부하여 생성, 보고, 분석 등 정보공유를 용이하게 하도록 만들어진 국제표준화 재무보고용 전산언어
 - 현재 의무 공시 대상인 비금융업 상장사에서 비상장법인²⁾까지 확대하고, 공시 범위도 재무제표 본문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재무제표 주석까지 확대
-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재무제표 본문과 더불어 주석 작성 시에도 XBRL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금융사 및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

1) 금융감독원, 2023. 3. 31,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되는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재무정보가 국제표준(XBRL)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개편됩니다, 보도자료.

2) XBRL 적용 비상장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(자본시장법 제159조제1항,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제1항), IFRS 적용 대상 기업(외감법 시행령 제6조)이 해당

- 재무제표 본문) 금융업 및 비상장법인은 2023년 3분기부터 재무제표 본문에 XBRL을 의무적으로 적용
- 재무제표 주석)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은 2023년 사업보고서부터 XBRL을 적용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~ 2조원 미만인 비금융 상장사는 2024년도 사업보고서부터, 5천억원 미만의 기업은 2025년도 사업보고서부터 XBRL을 적용하여 제출하며, 금융사에 대해서는 2024년 중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
- 상당 부분이 문장으로 구성된 주석의 경우 개별 항목에 속성값을 부여하는 ‘detailed tagging’ 방식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만 문장 위주로 구성된 항목들은 그룹화하여 한 개의 영역으로 처리(block tagging)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

□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기업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에 대해 XBRL 적용을 의무화하여 데이터를 개방

- 미국 SEC는 기업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 일부에 대해 XBRL 적용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
 - XBRL은 미국공인회계사회(AICPA) 주도로 1999년 개발되었으며 미국에서는 2009년에 의무적으로 XBRL을 재무제표에 적용하도록 함
 - 미국 전자공시시스템인 EDGAR에 기업이 XBRL 형식의 재무정보를 제출하고, XBRL US Center for Data Quality는 EDGAR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XBRL 오류 및 부적절한 태그 등을 식별하여 재무 데이터 유용성 개선을 위해 검증
- 일본에서는 2008년 XBRL을 도입하여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에 활용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청(FSA)에서 규제
 - 「금융상품거래법」에 근거한 전자공시시스템(Electronic Disclosure for Investors' Network: EDINET)을 이용하여 XBRL을 적용한 재무정보를 작성하고 제출
- 싱가포르에서도 기업의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 일부에 대해 XBRL 형식을 적용하여 제출하도록 규정
 - 싱가포르는 2013년부터 상업은행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기업이 XBRL 형식의 재무제표를 ‘ACRA Taxonomy 2013’에 따라 회계 및 기업 감독기관인 ACRA(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)에 제출하도록 명시
- 영국의 경우 기업이 국세청(HM Revenue & Customs: HMRC)에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재무제표를 XBRL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요구
 - 2010년 기업이 법인세 환급을 위해 재무제표를 iXBRL(inline XBRL)을 이용하여 바로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종이문서나 첨부파일로 보낼 수 없고, HMRC는 기업을 위한 XBRL 가이드라인(XBRL guide for businesses)을 제공
- 유럽은 ESMA가 XBRL 도입을 추진한 끝에 재무제표 본문은 2020년, 주석은 2022년부터 XBRL 형식을 의무 적용
 - 유럽은 ESEF(European Single Electronic Format) 요건에 따라 XBRL 재무보고를 실시

- ‘detailed tagging’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ESMA는 2022년 11월 ESEF 공시 매뉴얼을 업데이트를 통해 텍스트 블록 태그를 구성하는 방법(block tagging)에 대한 필수 지침을 발표하여 2022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함

□ 국내의 경우 비금융업 상장법인만 XBRL 기반의 재무보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공시 내용도 제한적

- 국내 기업은 비금융업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본문에 대해서만 XBRL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석 데이터에 대한 수집 및 활용이 어려워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하는 등 기업 재무 분석에 대한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³⁾
 -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재무제표 본문(재무상태표, 포괄손익계산서, 자본변동표, 현금흐름표)에 대한 XBRL 적용이 의무화
 - 하지만 기업 재무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을 서술한 주석에 대해서는 XBRL로 제공하지 않아, 거래의 실질을 강조하는 IFRS의 도입 이후 재무제표 주석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회계정보 투명성과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
 - 또한 해외 정보이용자들의 경우 국문으로 이루어진 주석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받기 어려운 문제도 있음
- 또한 재무제표 본문에 대한 XBRL 적용이 의무화된지 12년이 경과했으나 도입 이후 XBRL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
 - XBRL의 근간인 XML(Extensible Markup Language)에 대한 이해 부족과 프로그래밍을 통한 XBRL 정보의 수집 및 저장, 추출 과정 등에 따른 기술적 어려움 및 기업들이 XBRL 표준분류체계하의 표준태그를 충실하게 사용하지 않는데 따른 실효성 문제⁴⁾

□ 재무정보에 대한 XBRL 활용은 기업 재무분석 및 질적 정보를 이용한 기업평가를 용이하게 하고 재무제표와 주석 간의 정보불일치를 방지하여 재무정보의 정확성 향상에 기여

- 기업이 공시하는 정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XBRL의 활용은 웹상에서 구조화된 데이터를 통해 재무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
 - IFRS 도입 이후 계정분류는 단순하게 표시하는 반면, 상세한 정보는 주석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주석정보의 양이 증가하였고, 사업환경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공시 정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⁵⁾

3) 윤재원·심준용·정우준, 2021. 12. 18, 한국의 국제재무보고 표준언어(XBRL)의 정착을 위한 대응방안 연구, 한국회계학회 발표 자료; 금융감독원, 2023. 3. 31,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되는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재무정보가 국제표준(XBRL)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개편됩니다, 보도자료.

4) 정석운·최현지·이용석, 2022, K-IFRS XBRL 공시시스템의 국내 도입현황 및 XBRL 정보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: 확장계정 품질을 중심으로, 『상업교육연구』 36(4), 139-160.

5) 과거 금융감독원 조사자료에 따르면, K- GAAP을 적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주석 정보량이 71% 증가한 것으로 보고(금융감독원, ‘K- IFRS를 조기 도입한 상장회사의 계정과목수와 주석정보의 양적 변동현황)

- XBRL은 재무제표 개별 데이터 항목을 표준화된 형식으로 태그하는 형식으로서 이러한 방식으로 포맷된 데이터를 정보이용자가 쉽게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어 여러 기업 및 기간, 산업 간 분석 및 비교가 가능
- XBRL은 정보처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비교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지만, 명확한 기준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존재
 - 표준계정과목을 벗어난 불필요한 확장태그를 생성하여 보고하면 재무보고의 품질이 낮아질 수 있음⁶⁾

□ 따라서 XBRL 재무공시 확대로 국내외 정보이용자들의 기업 재무정보를 이용한 분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외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고 재무정보의 투명성이 강화되며 해외 공시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

- XBRL 재무공시가 재무제표 본문뿐 아니라 주석까지 확대되고 적용 기업도 많아지면서 정보이용자들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
 - 복잡한 회계처리에 따른 재무정보를 구조화한 XBRL의 활용으로 재무공시의 정보유용성이 증가하여 정보의 교환비용이 절감되고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향상⁷⁾
- 또한 XBRL 재무공시는 재무제표의 정보가 영문으로 자동 변환되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시 즉시 재무정보를 파악하기 용이할 것으로 전망
 -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2024년부터는 외국인 지분율 30% 이상의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영문 공시가 의무화될 것으로 발표⁸⁾된 가운데 XBRL 공시 확대로 해외 이용자들의 편의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
- 기업은 XBRL을 활용한 표준데이터 기능을 통해 재무제표와 주석 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고 해외에 상장된 국내 기업이 공시하는 경우 XBRL 데이터 활용으로 공시비용 절감이 가능
 - 재무제표 본문과 이를 설명하는 주석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오류가 자동식별되고, 표준양식에 따라 지분구조 변동이나 약정사항, 특수관계자 거래 등의 주요사항 누락 방지가 가능
 - 해외에 상장된 국내 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할 때마다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데, XBRL의 활용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
- 그리고 XBRL의 활용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으로 꼽히는 회계 불투명성, 정보 비대칭성 등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⁹⁾

6) Debreceeny, R. S., Farewell, S. M., Piechocki, M., Felden, C., Gräning, A., d'Eri, A., 2011, Flex or break? Extensions in XBRL disclosures to the SEC, *Accounting Horizons* 25(4), 631-657.

7) 최승호, 2008, XBRL 을 이용한 재무정보공시가 회계투명성에 미친 영향. 『경영교육연구』 50(1), 281-304.; 양동훈, 최준혁, 김령, 2015, XBRL 도입과 회계투명성. 『대한경영학회지』 28(8), 2065-2090.

8) 금융위원회, 2023. 4. 3, 상장사의 공시정보, 2024년부터 영문으로도 제공된다, 보도자료.

9) 금융감독원, 2023. 3. 31,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되는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재무정보가 국제표준(XBRL)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개편됩니다, 보도자료.

- XBRL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간 비교분석을 통해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효율적으로 분식회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적발할 수 있음
-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순위는 2015년부터 최하위권을 기록한 이후 2020년 46위(63개국), 2021년 37위(64개국)로 올라섰으나 2022년 다시 53위(63개국)로 하락¹⁰⁾하며 회계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, XBRL 재무정보 공시로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

□ XBRL 재무공시 의무화 확대를 앞두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들의 공시인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가운데, XBRL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확장태그 사용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시되는 XBRL 데이터 품질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

— XBRL의 재무공시 대상 기업의 확대를 앞두고 해당 기업들은 이에 대비할 필요

- XBRL을 적용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, 소규모, 비상장 기업은 시스템 및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이나 교육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 당국은 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¹¹⁾
- 이러한 기업 수요에 대응하여 회계법인은 XBRL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TF를 출범해 운영하며 지원 체계를 구축

— 또한 XBRL 적용이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해석을 왜곡하지 않도록 태그의 사용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, 데이터 품질 관리도 중요¹²⁾

- 확장태그를 관리하여 불필요한 계정 삭제, 표준계정과목에 없는 계정의 신설 등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관리가 필요

선임연구원 홍지연

10) IMD, 2023, *World Competitiveness Ranking 2022 Results*.

11) 금융감독원, 2023. 3. 31,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되는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재무정보가 국제표준(XBRL)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개편됩니다, 보도자료.

12) 조현권·이준일, 2021, K-IFRS 재무제표 본문 및 XBRL 계정과목 사용 현황, 『회계저널』 30(6), 43-71; XBRL, 2021. 11. 10, Investor forum 2021: Data that delivers.